

#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차이: 지역 내 거주자와 이웃 주민으로서 체류외국인 유입 효과

Cosmopolitanism and Exposure to Foreign Residents: Do Urbanites Have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감지혜 Kam, Jihye\*

## Abstract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has increased, changes in natives' attitudes towards multiculturalism have received scholarly atten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estimates th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multiculturalism across metropolises, cities, and rural areas, and analyzes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se gaps. Consistent with earlier studies, multiculturalism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cities and rural areas compared to metropolises. However, when controlling for interaction terms between dummies for cities and rural are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and the dummy for having immigrant neighbors, the direction of the estimates reversed, implying the opposite results. Unlike in metropolises and cities, in rural areas, attitudes towards multiculturalism became significantly higher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creased, especially when immigrant neighbors were not present. Since the choice of residence is legally protected for all, including foreign residents, this study suggests adjusting the level of exposure to positive or negative portrayals of foreign immigrants in local media as a potential policy tool to promote multiculturalism.

**Keywords:** Cosmopolitanism, Exposure to Multiculturalism, Immigrant Neighbor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Urban-Rural Gap

## I. 서론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30일 기준 국내 장·단기 체류외국인 수는 2,641,273명으로 2007년 1,046,181명에 비하여 대략 94.62% 증가하였다. 전체 등록외국인은 1,488,091명으로 지역 규모별로 대도시 64.34%, 중소도시 27.97%, 읍·면 지역 7.69% 거주하여 대도시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경

기도 31.27%, 서울특별시 17.84%, 경상남도 6.79%, 충청남도 6.55%, 인천광역시 5.94%, 경상북도 5.23%, 전라남도 3.88%, 충청북도 3.81%, 부산광역시 3.73%, 전라북도 3.05%, 대구광역시 2.43%, 제주특별자치도 1.86%, 광주광역시 1.77%, 울산광역시 1.85%, 강원도 1.80%, 대전광역시 1.76%, 세종특별자치시 0.42% 체류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이러한 통계값은 대도시 거주민일수록 보다 외국 이주민과의 접촉 확률이 높은 다문화 환경에 노출되어

\*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 Assistant Prof.,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 jkam@sungshin.ac.kr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다문화 환경 거주민일 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Blumer 1958; Pettigrew and Meertens 1995; Pettigrew and Tropp 2006; Pauker, Carpinella, Meyers and Young et al. 2018; Schwartz 2013; Schmid, Wölfer, Swart and Christ et al. 2017; Verkuyten 2018). 즉, 대도시와 비교하여 읍·면 지역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낮게 추정되어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읍·면 지역 중심의 다문화 교육 강화를 제언하였다(Fennelly and Federico 2008; Frasure-Yokley and Huijsmans 2021; Wilcox-Archuleta 2019).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도 대도시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추정되는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의 2012, 2015, 2018, 2021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를 활용한 가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간 서로 유의하게 상이한 추정치가 도출된다면 지역 내 외국인 수와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를 활용하여 외국 이주민과의 간접 및 직접적 접촉 수준 차이를 지역 규모 효과의 기제로 설명하고 분석결과를 근거로 지역 특성별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외국 이주민 유입의 역사적 배경

2024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등록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36.39% — 한국계 중국인 66.88%), 베트남(11.75%), 태국(7.11%), 미국(6.58%), 우즈베키스탄(3.57%), 러시아(2.63%) 순으로 2007년의 중국(46.83% — 한국계 중국인 63.90%), 미국(10.67%),

베트남(6.71%), 필리핀(4.86%), 태국(4.27%), 일본(3.54%)과 비교하여 중국의 경우 전체 등록외국인 증가분인 94.62%와 유사한 수준인 95.76%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은 각각 594.25%, 455.46%, 342.43%, 319.92%로 급증한 반면에 필리핀, 미국, 일본은 33.73%, 55.53%, 65.67%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서 지난 20년 사이 국내 체류외국인의 국적 구성이 크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2024).

국내 체류외국인 유입의 시발점은 1991년 10월 26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에 관한 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255호)과 시행규칙 제정·시행 및 「출입국관리법령」의 ‘산업기술연수’ 체류자격제도를 법적 근거로 도입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최홍엽 2008).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sup>1)</sup>을 근거로 한 소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결혼이주여성 유입을 통한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후자로 인하여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부부 수는 1994년 3,072쌍에서 1995년 1만 365쌍으로 237.40% 증가하였다.

특히,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한-중 외교관계 정상화로 말미암아 전체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부부 중 중국 국적의 아내를 둔 부부가 8,450쌍으로 전체의 81.52%를 차지하였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94; 1995). 이어서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1) 여성가족부는 2020년 ‘국제결혼 지원사업 특정 성별 영향 평가’ 실시 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사업 재검토를 권고하였음. 2024년 기준,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 (경상남도) 거창군, 고성군,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여수시, (전라북도) 부안군,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군, (충청북도) 단양군 등임.

시행에 따라서 한국계 중국인 입국자 수가 1999년 9월 2,196명에서 10월 3,202명, 11월 5,060명, 12월 5,33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999).

이와 같이 대·중소도시의 체류외국인 유입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취업을 위한 이주에서 비롯되었다면 읍·면 지역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증가에서 기인된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 규모별 체류외국인 특성 차이에 주목하여 지역 규모별 다문화 수용성 차이를 추정하고 지역 규모 효과에 대한 기제로 체류외국인 특성과 그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제 선정 및 구체화에 기여한 선행연구를 요약·검토하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여도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 III.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간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추정하고 차이에 대한 기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에 있다. 관련 국외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지역을 크게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도농 지역 간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추정하였다. 농촌과 비교하여 도시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Age and Strang 2008; Brownstein 2016; Kymlicka 1995; Luca, Terrero-Davila, Stein and Lee 2023; Portes and Rumbaut 2024; Semyonov and Gorodzeisky 2005; Zhou 2009).

지역 특성별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대체로 도시와 농촌으로 지역을 구분하기보다는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거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민지선, 김두섭 2013; 오영삼, 남성희, 윤수경 2014; 최영

미, 이나련 2016). 도농 간 다문화수용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경우 외국인 비율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추정되지 않았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가 추정되거나(이다은, 이윤아, 고혜빈 2016)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것을 보였다(이소현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보다 일반적인 추정치를 도출하고자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단년도가 아닌 2012, 2015, 2018, 2021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를 활용하였다.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는 비록 시군구 변수를 제공하지 않지만 시도 및 지역 규모 변수는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답자의 거주지를 크게 대도시(특별시·광역시·특례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고 조사년도, 시도 및 시도별 선행 추세 고정효과를 개인 특성과 함께 통제해서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간 다문화수용성 차이가 유의하게 추정된다면 그에 대한 기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간접적 외국인 접촉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역 내 외국인 수와 직접적 외국인 접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를 추가로 통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경우 직·간접적 외국인 접촉 수준을 추정하는데 주관적 응답 문항을 활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하고자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 법무부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도×지역 규모별 등록 외국인 수를 '간접적 접촉'으로, 설문 문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변에 이웃 주민으로 외국인 거주 유무'를 '직접적 접촉'으로 정의하였다.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Tajfel 1981; Turner 1982; Tajfel and Turner 1986; Taylor and Moghaddam 1987; Hogg and Turner 1996)과

문화적응이론(Berry 1997; 2004; 2005; Berry and Kalin 1995)을 근거로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개발한 한국 다문화수용성 지수(KMCI, Korea Multicultural Inventory)<sup>2)</sup>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해당 지수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3차원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인지·정서·행동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다양성은 문화 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보편성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등 총 8개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된다. 다양성 차원은 다른 집단의 정체성이나 문화유산 등을 우리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려는 태도를, 관계성 차원은 외국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태도를, 보편성 차원은 외국 이주민 집단의 출신 지역이나 인종·민족에 상관없이 모두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문화·인종·종교·지역적 차이를 관대히 다루는 태도를 일컫는다(여성가족부 2012).

이와 더불어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는 다국간 다문화수용성 비교를 위하여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국민정체성 11개 문항<sup>3)</sup>도 포함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이에 본 연구는 국민정체성 지수 측정에 있어서 한국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하위 범주로 조사된 국민정체성 문항과 함께 ISSP 국민정체성 문항을 추가로 활용하여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

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국 다문화수용성 지수에서 제안된 3차원(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측면과 아울러 다문화지향성, 단일민족지향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을 분석하려고 한다.<sup>4)</sup> 세부적으로 다문화지향성은 어디에서든 다양한 인종·종교·문화의 공존을 지향하는 태도이고, 단일민족지향성은 국가결속력·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단일민족을 지향하는 태도이며, 외국인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외국인 수 증가는 부정적 효과만 가져온다고 인식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이와 같이 방법론적으로 상이한 접근을 통하여 도출된 추정치를 근거로 현행 다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행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음 문단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 및 실증 분석모형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겠다.

## IV. 자료 및 분석 방법

### 1. 자료

본 연구는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조사하는 19~75세 일반국민 대상 2012~2021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는 「통계법」(법률 제20408호, 2024. 3. 26., 일부

2) 해당 척도는 유로바로미터 조사(EBS: Eurobarometer Survey),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종합사회조사(GSS: General Social Survey) 및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을 참고하여 개발되었음.

3) ISSP 국민정체성 측정을 위한 변수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등을 포함함. Cronbach's  $\alpha$ 는 2012년 0.859, 2015년 0.881, 2018년 0.855, 2021년 0.872로 통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0.7보다 높게 측정되었음.

4) Cronbach's  $\alpha$ 는 0.7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측정되었음. 세부적으로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항목별 Cronbach's  $\alpha$ 는 문화개방성 - 0.811, 0.739, 0.825, 0.735; 국민수용성 - 0.753, 0.794, 0.820, 0.784; 고정관념 및 차별 - 0.892, 0.868, 0.880, 0.890; 일방적 동화기대 - 0.750, 0.763, 0.753, 0.782; 거부·회피정서 - 0.785, 0.893, 0.857, 0.904; 상호교류행동의지 - 0.850, 0.831, 0.848, 0.873; 이중적 평가 - 0.845, 0.806, 0.841, 0.818; 세계시민행동의지 - 0.799, 0.737, 0.801, 0.793; 다문화지향성 - 0.817, 0.800, 0.776, 0.777; 단일민족지향성 - 0.701, 0.668, 0.707, 0.658;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 - 0.734, 0.776, 0.783, 0.802 등임.

개정·시행)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87호, 2024. 12. 24., 타법개정·시행) 제24조,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시행) 제4조(실태조사 등)의 규정에 근거한 승인 통계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154019호)이다.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로 이루어진 일반국민 조사와 중·고등학생 대상의 '자기기입식 집단조사'로 구성된 청소년 조사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전자의 일반국민 조사를 활용하였다. 조사·공표주기는 3년으로 2012년 최초로 조사되어 2025년 1월 기준 2021년 조사가 공개된 조사 중 가장 최근 조사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2, 2015, 2018, 2021년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간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단년도 대신 4개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특정 연도 효과로 인한 편향된 결과 도출을 방지하고 추정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분석에 활용한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지역 구분은 당해 연도 행정구역 분류에 근거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를 대도시로, 행정시를 중소도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표본 수 10,978명 중 대도시 42.82%, 중소도시 40.67%, 읍·면 지역 16.51% 거주한다. 읍·면 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고령, 기혼, 저학력, 저소득 및 기능원·관련 기능종사자,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해외여행 및 거주 미경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 체류외국인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표본에서 확인되는 시도 및 지역 구분 코드를 활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해 12월 31일 발표하는 등록외국인 시군구별 현황 자료를 연계하였다. 지역 내 외국인 수는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반대로 주변에 외국인이 이웃 주민으로 거주할 확률은 읍·

면 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각각 13.35%p, 10.39%p 높게 추정되었다.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등의 6단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ISSP 국민정체성 관련 문항은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별로 중요하지 않다, 3 대체로 중요하다, 4 매우 중요하다 등의 4단계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문화지향성, 단일민족지향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의 경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등의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직관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하위 범주별 합산 평균을 연도별로 평균 0, 분산 1로 표준화하고 표준점수에 대한 합산의 평균을 다시 표준화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을 질의하는 문항이 일관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위범주 간 합산 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긍정·부정의 방향을 일관적으로 조정하였다. 예컨대, 다양성 척도에 대한 문항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의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문항의 경우, '7-응답한 척도×(-1)'의 식을 통해서

긍정적 척도로 응답의 방향을 전환하여 문항 간 일관성을 조정하였다. 지역 규모별로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과 비교하여 대도시의 이중적 평가에 대한 지수는 1% 유의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세계시민행동의지나

표 1 지역 규모별 기술통계

구분	전체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지역 (4)	대도시-중소도시 (5)	대도시-읍·면 지역 (6)	중소도시-읍·면 지역 (7)
표본 수(명)	10,978	4,701	4,465	1,812	236	2,889	2,653
여성(%)	38.82	37.57	39.66	40.43	-2.09 [-1.574]	-2.86 [-1.532]	-0.77 [-0.403]
기혼(%)	74.37	72.33	74.77	79.92	-2.44* [-1.866]	-7.59*** [-4.573]	-5.15*** [-3.094]
연령(세)	45.39	44.80	45.15	48.11	-0.35 [-0.987]	-3.31*** [-6.633]	-2.96*** [-5.884]
최종학력(%)							
- 초등학교 졸업 이하	3.37	2.39	2.47	9.38	-0.07 [-0.220]	-6.99*** [-9.588]	-6.92*** [-9.542]
- 중학교 졸업	6.31	5.34	5.82	11.06	-0.48 [-0.861]	-5.72*** [-5.760]	-5.24*** [-5.204]
- 고등학교 졸업	42.71	40.97	43.07	47.39	-2.10 [-1.561]	-6.43*** [-3.366]	-4.33** [-2.232]
- 전문대학 학사 학위	19.71	20.34	20.6	14.85	-0.26 [-0.228]	5.49*** [3.904]	5.75*** [3.991]
-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26.86	29.76	27.22	16.09	2.54 <sup>†</sup> [1.928]	13.68*** [7.913]	11.14*** [6.469]
- 대학원 졸업	1.04	1.20	0.82	1.23	0.38 <sup>†</sup> [1.653]	-0.03 [-0.059]	-0.41 [-0.782]
소득수준(%)							
- 100만 원 미만	1.40	0.80	1.40	3.37	-0.59*** [-2.705]	-2.57*** [-5.512]	-1.97*** [-4.124]
- 100 - 200만 원 미만	6.75	4.56	7.25	12.47	-2.68*** [-4.702]	-7.91*** [-7.734]	-5.22*** [-5.024]
- 200 - 300만 원 미만	17.07	15.17	16.67	24.61	-1.51 [-1.639]	-9.44*** [-6.433]	-7.94*** [-5.415]
- 300 - 400만 원 미만	26.72	26.13	26.13	30.52	0.00 [-0.003]	-4.40** [-2.483]	-4.39** [-2.457]
- 500 - 600만 원 미만	23.89	26.53	24.10	14.48	2.43** [2.007]	12.05*** [7.827]	9.62*** [6.168]
- 600 - 700만 원 미만	14.22	16.21	14.00	8.31	2.21** [2.076]	7.90*** [6.157]	5.69*** [4.453]
- 700만 원 이상	5.30	5.61	5.46	3.76	0.14 [0.172]	1.84 <sup>†</sup> [1.904]	1.70 <sup>†</sup> [1.685]
직업군(%)							
- 관리자	4.65	4.99	4.99	2.47	0.01 [0.012]	2.52*** [3.284]	2.51*** [3.113]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58	3.01	2.57	1.18	0.44 [1.081]	1.83*** [3.858]	1.39*** [2.943]
- 사무종사자	4.00	3.21	5.13	3.13	-1.93*** [-3.365]	0.07 [0.096]	2.00** [2.272]
- 서비스종사자	24.13	25.30	24.59	18.80	0.71 [0.557]	6.50*** [3.619]	5.78*** [3.283]
- 판매종사자	27.47	28.95	27.72	21.81	1.23 [1.007]	7.13*** [4.053]	5.91*** [3.368]
- 농·어업 숙련종사자	23.26	24.49	23.08	19.68	1.41 [1.174]	4.81*** [3.312]	3.40** [2.216]
- 기능원·관련 기능종사자	4.35	0.36	2.40	23.67	-2.05*** [-8.823]	-23.31*** [-20.134]	-21.27*** [-18.101]
- 장치·기계 조작·조립종사자	8.25	9.11	7.85	6.62	1.25 <sup>†</sup> [1.771]	2.48** [2.554]	1.23 [1.260]
- 단순노무종사자	2.23	2.00	2.53	2.05	-0.53 [-1.462]	-0.05 [-0.107]	0.48 [0.960]
- 군인	3.59	3.46	3.95	2.91	-0.49 [-1.171]	0.55 [1.147]	1.04** [2.094]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정규직)	52.34	54.41	52.68	44.44	1.72 [1.253]	9.97*** [5.043]	8.24*** [4.114]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39	9.25	9.70	8.87	-0.46 [-0.602]	0.38 [0.429]	0.83 [0.898]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80	3.13	2.48	2.73	0.65 <sup>†</sup> [1.654]	0.40 [0.794]	-0.25 [-0.545]
- 무급가족종사자	6.32	6.15	6.94	5.01	-0.79 [-1.158]	1.13 [1.318]	1.92** [2.035]
- 임시근로자	24.19	23.68	23.81	27.02	-0.12 [-0.104]	-3.34** [-2.173]	-3.21** [-2.024]
- 일용근로자	4.96	3.39	4.39	11.93	-1.00** [-2.245]	-8.54*** [-9.568]	-7.53*** [-8.292]
다문화 교육 경험(%)	6.80	6.81	6.18	8.69	0.63 [0.927]	-1.88 [-1.624]	-2.51** [-2.241]
해외 여행·거주 경험(%)	52.77	51.83	52.11	57.95	-0.28 [-0.204]	-6.12*** [-3.248]	-5.83*** [-3.063]
주변에 외국인 거주 여부(%)	23.58	20.55	23.51	33.90	-2.96*** [-2.686]	-13.35*** [-7.882]	-10.39*** [-6.070]
지역 내 외국인 수(만 명)	20.42	25.90	20.47	2.07	5.42*** [9.848]	23.83*** [52.479]	18.41*** [58.437]

주: 각 행렬은 가중평균값, 대괄호 안은 t통계량을 나타냄.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2012~2021)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법무부(2012~2021)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 말 기준).

표 2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지수 차이

구분	전체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지역 (4)	대도시-중소도시 (5)	대도시-읍·면 지역 (6)	중소도시-읍·면 지역 (7)
다문화수용성	-0.01 (0.971)	0.00 (0.942)	0.00 (0.971)	-0.04 (1.061)	0.01 [0.331]	0.04 [1.111]	0.04 [0.885]
- 다양성	0.01 (0.985)	0.01 (0.943)	0.01 (1.013)	0.04 (1.034)	0.00 [-0.032]	-0.03 [-0.819]	-0.03 [-0.754]
· 문화개방성	0.00 (0.982)	-0.02 (0.978)	0.00 (0.989)	0.03 (0.973)	-0.02 [-0.791]	-0.05 [-1.344]	-0.03 [-0.702]
· 국민수용성	-0.02 (0.979)	0.03 (0.953)	-0.06 (0.981)	-0.01 (1.053)	0.09*** [3.531]	0.03 [0.777]	-0.06 [-1.482]
· 고정관념 및 차별	0.03 (0.981)	0.01 (0.963)	0.04 (0.989)	0.06 (1.011)	-0.03 [-1.154]	-0.05 [-1.287]	-0.02 [-0.436]
- 관계성	0.00 (0.973)	-0.04 (0.936)	0.03 (0.993)	-0.01 (1.029)	-0.07*** [-2.598]	-0.03 [-0.605]	0.04 [1.018]
· 일방적 동화기대	-0.02 (0.956)	-0.03 (0.915)	-0.02 (0.991)	0.02 (0.981)	-0.01 [-0.302]	-0.05 [-1.451]	-0.04 [-1.148]
· 거부·회피정서	0.01 (0.972)	0.01 (0.937)	0.02 (0.997)	-0.04 (1.009)	0.00 [-0.045]	0.06 [1.516]	0.06 [1.457]
· 상호교류행동의지	0.00 (0.974)	-0.04 (0.952)	0.05 (0.969)	0.00 (1.055)	-0.09*** [-3.552]	-0.03 [-0.836]	0.06 [1.360]
- 보편성	0.02 (0.974)	0.02 (0.947)	0.02 (0.995)	-0.01 (1.000)	0.00 [-0.022]	0.03 [0.847]	0.03 [0.831]
· 이종적 평가	0.02 (0.985)	0.07 (0.975)	-0.02 (0.995)	-0.04 (0.979)	0.09*** [3.624]	0.11*** [2.968]	0.02 [0.474]
· 세계시민행동의지	0.00 (0.965)	-0.04 (0.933)	0.04 (0.986)	0.02 (0.997)	-0.08*** [-3.300]	-0.06* [-1.760]	0.02 [0.614]
- 다문화지향성	0.01 (0.984)	0.02 (0.982)	0.02 (0.984)	-0.05 (0.985)	0.00 [0.171]	0.07* [1.842]	0.06* [1.697]
- 단일민족지향성	-0.02 (0.986)	-0.05 (1.003)	0.01 (0.972)	0.02 (0.964)	-0.07** [-2.539]	-0.07** [-2.128]	-0.01 [-0.217]
- 위협 인식	-0.01 (0.986)	0.02 (0.924)	0.00 (1.029)	-0.10 (1.043)	0.02 [0.675]	0.12*** [3.149]	0.10*** [2.585]

주: 각 행렬은 가중평균값, 대괄호 안은 t통계량, 소괄호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관련 하위 범주에 대한 합산 점수를 연도별로 평균 0, 분산 1로 표준화한 점수로 개별지수에 대하여 연도별 Cronbach's  $\alpha$ 를 계산하면 평균 0.7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임.

자료: 여성가족부(2012-2021)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단일민족지향성의 경우 5% 유의수준으로 낮게 추정되었다. 대도시는 중소도시에 비하여 국민수용성이 높고 상호교류행동의지는 낮으며 읍·면 지역보다 다문화지향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도 높았다. 마찬가지로 중소도시의 다문화지향성은 읍·면 지역보다 높으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도 높게 추정되었다.<sup>5)</sup>

이러한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차이는 해당 지역 내 거주민의 특성 차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므로 다음 문단에 제시된 실증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특성 및 연도, 시도, 시도별 선형 추세 등을 통제한 후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보다 상세히 추정하겠다.

##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증분석모형은 <식 1>과 같다.

$$y_{i,t} = \alpha + X'_{i,t} \beta + \gamma_{c(i)} + \delta_{t(i)} + \lambda_{l(i)} + \eta_{l(i)}t + \epsilon_{i,t} \quad \text{〈식 1〉}$$

$y_{i,t}$ 는 다문화수용성 지수로 연도별 평균 0, 분산 1로 표준화한 점수이다. 본 연구의 관심 모수인  $\gamma_{c(i)}$ 는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더미변수로 대도시를 기준으로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 WLS)으로 추정한다.  $X'_{i,t}$ 는 응답자 개인 특성으로 성별, 기혼 여부, 연령, 최종 학력(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학사 학위, 4년제 대학교 학사 학위, 대학원 졸업), 직업

5) 본 연구에서 이차적으로 계산한 표준점수가 아닌 각 설문 문항에 대해 실제 응답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하위 범주별 K-S 검정(Kolmogorov-Smirnov test) 통한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분포 차이를 분석하거나 ANOVA 검정(Analysis of Variance)을 통하여 집단 간 평균값 차이를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

군(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 해외여행이나 거주 경험 여부 등을 포함한다.  $\delta_{t(i)}$ ,  $\lambda_{t(i)}$ 는 각각 연도 및 시도 고정효과를 의미하고  $\eta_{t(i)}$ 는 시도별 선형 추세이며  $\epsilon_{i,t}$ 는 오차항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함의를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 규모별로 나누어 추가 분석하였다.

## V. 분석결과

### 1.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전체 표본에서 지역 규모 터미변수를 통제하고 대도시를 기준으로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추정하면 <표 3>과 같다. 전체 척도에서 성별, 기혼 여부, 연령, 교육 수준이나 종사상 지위, 해외여행이나 거주 경험 여부는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위 범주의 경우,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다문화지향성은 유의하게 낮은 반면에 단일민족지향성이나 외국인

표 3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분	전체 (1)	다양성 (2)	관계성 (3)	보편성 (4)	다문화지향성 (5)	단일민족지향성 (6)	위험 인식 (7)
여성	0.011 (0.022)	-0.061* (0.032)	-0.080** (0.028)	-0.040** (0.019)	-0.082*** (0.023)	0.068** (0.026)	0.085*** (0.029)
기혼	-0.031 (0.036)	0.007 (0.046)	-0.004 (0.056)	0.027 (0.044)	-0.030 (0.047)	-0.019 (0.021)	-0.057** (0.022)
연령	-0.005 (0.006)	-0.001 (0.008)	0.003 (0.009)	-0.001 (0.008)	0.004 (0.007)	-0.008 (0.005)	-0.013 (0.013)
교육 수준(기준: 초졸 이하)							
- 중학교 졸업	0.045 (0.071)	0.020 (0.073)	-0.086 (0.072)	0.076 (0.045)	0.016 (0.063)	0.085 (0.071)	0.050 (0.094)
- 고등학교 졸업	-0.060 (0.086)	-0.098 (0.097)	-0.158* (0.086)	0.103 (0.063)	0.053 (0.062)	0.122** (0.053)	-0.074 (0.072)
- 전문대학 학사 학위	-0.042 (0.089)	-0.007 (0.117)	-0.092 (0.096)	0.151* (0.075)	0.062 (0.069)	0.109 (0.072)	-0.086 (0.075)
- 4년제 대학교 학사 학위	-0.105 (0.093)	-0.165 (0.111)	-0.166 (0.096)	0.166* (0.088)	0.111 (0.086)	0.075 (0.078)	-0.149* (0.076)
- 대학원 졸업	-0.194 (0.201)	-0.344* (0.186)	0.022 (0.232)	0.306 (0.234)	0.162 (0.161)	-0.118 (0.142)	-0.329 (0.191)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직 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039 (0.077)	-0.005 (0.055)	0.068* (0.038)	-0.012 (0.057)	0.015 (0.034)	-0.020 (0.055)	0.075 (0.071)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104 (0.088)	-0.124 (0.080)	-0.072 (0.092)	0.027 (0.118)	-0.249 (0.178)	-0.078 (0.097)	0.152 (0.122)
- 무급가족종사자	-0.011 (0.075)	0.036 (0.071)	0.062 (0.044)	0.026 (0.059)	0.008 (0.046)	-0.026 (0.054)	0.021 (0.112)
- 임시근로자	-0.035 (0.030)	-0.079** (0.033)	-0.035 (0.029)	-0.038 (0.049)	0.041 (0.025)	-0.069** (0.024)	0.010 (0.045)
- 일용근로자	-0.077 (0.044)	-0.105 (0.073)	-0.013 (0.080)	0.024 (0.080)	0.099 (0.059)	-0.032 (0.064)	-0.101 (0.062)
다문화 교육 경험	-0.139* (0.076)	-0.133* (0.065)	0.048 (0.037)	0.121 (0.080)	0.226*** (0.058)	-0.236*** (0.069)	-0.252** (0.100)
해외 거주·여행 경험	-0.022 (0.021)	-0.005 (0.032)	-0.009 (0.023)	0.086* (0.049)	0.052 (0.034)	-0.078** (0.029)	-0.073 (0.058)
지역 규모(기준: 대도시)							
- 중소도시	0.352*** (0.039)	0.352*** (0.034)	-0.267*** (0.036)	0.581*** (0.043)	0.639*** (0.035)	0.098*** (0.032)	0.419*** (0.063)
- 읍·면 지역	0.207*** (0.031)	0.319*** (0.072)	-0.328*** (0.047)	0.546*** (0.044)	0.629*** (0.030)	0.041 (0.034)	0.212*** (0.047)
R <sup>2</sup>	0.102	0.102	0.098	0.098	0.063	0.063	0.061
표본 수	1만 978						

주: 계수값은 <식 1>의  $\beta$ 와  $\gamma_{c(i)}$ 에 대한 추정치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시도별 군집강건표준오차임. 그 외 통제변인으로 연령제곱, 소득수준, 직업군, 시도, 조사연도 고정효과 및 시도별 선형 추세 등을 포함.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2012~2021)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법무부(2012~2021)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 말 기준).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은 높게 추정되었다. 미혼과 비교하여 기혼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민족지향성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가지며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성 지수는 낮지만 보편성 지수는 높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노동시장에서는 상용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관계성 지수는 높게, 임시근로자의 다양성 및 단일민족지향성은 낮게 추정되었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다문화 교육 경험자는 전체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하위 범주에서 다양성 지수가 유의하게 낮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와 반대로 단일민족지향성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은 낮은 반면에 다문화지향성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해외 거주 및 여행 경험자일수록 보편성 지수는 높고 단일민족지향성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변수인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와 비교하여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의 다문화수용성이 1% 유의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다양성, 보편성, 다문화지향성, 단일민족지향성은 높았으나 낮은 관계성과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을 보였다. 즉, 비록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의 경우 대도시보다 높은 단일민족지향성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 및 낮은 관계성이 추정되었으나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다른 하위 범주인 다양성, 보편성, 다문화지향성이 유의하게 높아서 전체 다문화수용성은 대도시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간 하위 범주별 다문화수용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나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앞서 논의한 개인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외국인 이주민과의 형성된 또는 형성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문화수용성 차이가 하위 범주별로 다르게 추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일자리 경쟁이나 이웃으로서 마찰 가능성이 높을수록 해당 하위 범주에서 낮은 지수가 추정될 수 있다. 예컨대, 저숙련 일자리 노동자일수록 고용 경쟁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게 추정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구의 가사 일을 전담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마찰로 인하여 단일민족지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차이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대도시나 읍·면 지역과 비교하여 중소도시의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이나 단일민족지향성은 해당 지역의 거주민이 외국인 이주민을 고용 경쟁 상대 혹은 이웃 주민으로 마주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면서도 중소도시의 상대적으로 높은 다양성, 보편성, 다문화지향성은 대도시나 읍·면 지역보다 외국인 이주민을 근로자 또는 주민으로서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직접적 접촉은 지양하되 간접적 접촉은 지향할 수 있다는 함의로 이러한 해석은 대도시나 읍·면 지역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관계성으로 뒷받침된다.

다음 문단에서는 지역 내 체류외국인 수를 지역 내 거주민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간접적 접촉에 대한 변수로, 주변에 이웃으로서 외국인 이주민 거주 여부를 직접적 접촉에 대한 변수로 설정하고 지역 규모와 간접 혹은 직접적 접촉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통제하여 이러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겠다.

## 2.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차이 기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차이는 지역 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노출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간접적 노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 내 외국인 수와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를 <식 1>에서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1]은 본 연구의 기본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모형 2]는 [모형 1]에서 지역 내 외국인 수에 대한 자연로그값과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 더미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여 추정한 결과를, [모형 3]은 [모형 2]에서 지역 규모와

추가 통제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을 덧붙여 통제해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 1]과 비교하여 [모형 2]에서 지역 내 외국인 수와 다문화수용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외국인 수가 10% 증가하면 표준점수가 0.0033점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는 통계

**표 4** 지역 규모별 외국인 수 및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와 다문화수용성

구분	모형 1 (1)		모형 2 (2)		모형 3 (3)	
여성	0.011	(0.022)	0.012	(0.022)	0.016	(0.023)
기혼	-0.031	(0.036)	-0.028	(0.036)	-0.030	(0.035)
연령	-0.005	(0.006)	-0.004	(0.006)	-0.004	(0.006)
교육 수준(기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 중학교 졸업	0.045	(0.071)	0.049	(0.071)	0.054	(0.070)
- 고등학교 졸업	-0.060	(0.086)	-0.057	(0.086)	-0.048	(0.084)
- 전문대학 학사 학위	-0.042	(0.089)	-0.039	(0.088)	-0.026	(0.087)
- 4년제 대학교 학사 학위	-0.105	(0.093)	-0.104	(0.093)	-0.086	(0.089)
- 대학원 졸업	-0.194	(0.201)	-0.189	(0.196)	-0.175	(0.192)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직 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039	(0.077)	0.038	(0.077)	0.042	(0.078)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104	(0.088)	-0.105	(0.086)	-0.105	(0.082)
- 무급가족종사자	-0.011	(0.075)	-0.013	(0.074)	0.001	(0.077)
- 임시근로자	-0.035	(0.030)	-0.034	(0.030)	-0.028	(0.031)
- 일용근로자	-0.077	(0.044)	-0.077	(0.044)	-0.070	(0.043)
다문화 교육 경험	-0.139*	(0.076)	-0.136*	(0.075)	-0.126*	(0.070)
해외 거주·여행 경험	-0.022	(0.021)	-0.020	(0.021)	-0.019	(0.023)
지역 규모(기준: 대도시)						
- 중소도시	0.352***	(0.039)	0.446***	(0.049)	-7.468***	(1.874)
- 읍·면 지역	0.207***	(0.031)	0.352***	(0.083)	-1.448***	(0.299)
Log(지역 내 외국인 수)			0.033*	(0.019)	-0.368***	(0.116)
× 중소도시					0.595***	(0.156)
× 읍·면 지역					-	-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			-0.059	(0.035)	0.985***	(0.251)
× 중소도시					-1.223**	(0.517)
× 읍·면 지역					-4.645*	(2.350)
Log(지역 내 외국인 수)×외국인 거주 여부					-0.088***	(0.019)
× 중소도시					0.110**	(0.041)
× 읍·면 지역					0.435*	(0.230)
R <sup>2</sup>	0.102		0.103		0.108	
표본 수	1만 978					

주: 계수값은 <식 1>의  $\beta$ 와  $\gamma_{(i)}$  및 상호작용항에 대한 추정치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시도별 군집강건표준오차임. 그 외 통제변인으로 연령제곱, 소득수준, 직업군, 시도, 조사연도 고정효과 및 시도별 선형 추세 등을 포함.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2012~2021)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법무부(2012~2021)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 말 기준).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지역 규모에 대한 추정치가 [모형 1]에 비하여 통제변수가 추가된 [모형 2]에서 더 크게 추정되었다는 점은 지역 규모별로 역내 외국인 수나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모형 3]에서 지역 규모와 체류외국인 수, 그리고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대도시와 비교하여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의 다문화수용성이 오히려 유의하게 낮게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항에 대한 추정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대도시와 비교하여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내 외국인 수가 늘어날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높아지지만 주변에 외국인이

주민이 이웃으로 거주한다면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읍·면 지역의 경우 외국인 수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대도시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게 추정되었으나 주변에 외국인 이주민이 거주하면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며 그 효과는 대략 4배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단, 지역 내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주변에 외국인 이주민이 거주한다면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유의하게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지역 규모별로 오차항에 포함된 관측 불가능한 변수의 설명력이 서로 다르게 추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으로 표본을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분	대도시 (1)		중소도시 (2)		읍·면 지역 (3)	
여성	-0.011	(0.022)	0.036	(0.030)	-0.002	(0.025)
기혼	0.055*	(0.026)	-0.085	(0.055)	-0.156	(0.086)
연령	-0.011	(0.007)	0.005	(0.011)	-0.018	(0.025)
교육 수준(기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 중학교 졸업	0.050	(0.105)	-0.034	(0.132)	0.197**	(0.083)
- 고등학교 졸업	0.009	(0.158)	-0.151	(0.133)	0.025	(0.105)
- 전문대학 학사 학위	0.034	(0.183)	-0.102	(0.118)	-0.120	(0.188)
-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0.016	(0.170)	-0.227*	(0.102)	-0.084	(0.157)
- 대학원 졸업	-0.270	(0.295)	-0.259	(0.269)	0.436	(0.355)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직 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077	(0.065)	0.169	(0.094)	-0.045	(0.080)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193**	(0.081)	0.069	(0.093)	-0.397	(0.246)
- 무급가족종사자	-0.153**	(0.060)	0.134***	(0.039)	0.015	(0.157)
- 임시근로자	-0.033	(0.023)	-0.018	(0.032)	0.010	(0.122)
- 일용근로자	-0.096	(0.141)	-0.019	(0.039)	-0.039	(0.049)
다문화 교육 경험	-0.145	(0.129)	-0.118	(0.065)	-0.018	(0.172)
해외 거주·여행 경험	-0.044	(0.047)	-0.004	(0.028)	0.113	(0.064)
Log(지역 내 외국인 수)	0.019***	(0.004)	0.018*	(0.009)	1.582***	(0.192)
주변에 외국인 거주 여부	-0.073	(0.052)	0.013	(0.047)	-0.163*	(0.081)
R <sup>2</sup>	0.120		0.107		0.187	
표본 수	4,701		4,465		1,812	

주: 계수값은 <식 1>의 β에 대한 추정치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시도별 군집강건표준오차임. 그 외 통제변인으로 연령제곱, 소득수준, 직업군, 시도, 조사연도 고정효과 및 시도별 선형 추세 등을 포함.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2012~2021)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법무부(2012~2021)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 말 기준).

지역 내 외국인 수에 대한 효과는 읍·면 지역에서 가장 크게 추정되는데 지역 내 외국인 수가 10%가 증가하면 읍·면 지역의 다문화수용성은 0.158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0.002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와는 반대로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읍·면 지역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읍·면 지역의 경우 지

역 내 외국인 수가 증가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높아지나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는 오히려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지역 내 외국인 수와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자 다음으로 다문화수용성 하위 범주에서의 지역 규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난다.

**표 6**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다문화수용성 차이: 하위 범주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rho_1$ (1)	$\rho_2$ (2)	$R^2$ (3)	$\rho_1$ (4)	$\rho_2$ (5)	$R^2$ (6)	$\rho_1$ (7)	$\rho_2$ (8)	$R^2$ (9)
다문화수용성	0.019*** (0.004)	-0.073 (0.052)	0.120	0.018* (0.009)	0.013 (0.047)	0.107	1.582*** (0.192)	-0.163* (0.081)	0.187
- 다양성	-0.043*** (0.004)	-0.014 (0.055)	0.117	0.030*** (0.007)	-0.100** (0.042)	0.107	0.775*** (0.131)	-0.101 (0.088)	0.219
· 문화개방성	-0.032*** (0.008)	0.025 (0.049)	0.086	-0.059*** (0.005)	0.012 (0.031)	0.058	0.804*** (0.086)	0.012 (0.085)	0.119
· 국민정체성	0.010** (0.003)	0.026 (0.038)	0.132	0.102*** (0.006)	0.017 (0.026)	0.095	1.225*** (0.215)	-0.109 (0.090)	0.197
· 고정관념 및 차별	-0.065*** (0.003)	-0.032 (0.057)	0.126	0.039*** (0.008)	-0.081 (0.061)	0.103	0.325** (0.131)	-0.091 (0.094)	0.212
- 관계성	-0.134*** (0.003)	-0.004 (0.032)	0.080	-0.149*** (0.012)	-0.043 (0.044)	0.074	1.108*** (0.105)	0.068 (0.071)	0.189
· 일방적 동화기대	-0.097*** (0.004)	0.011 (0.071)	0.126	-0.081*** (0.009)	-0.029 (0.032)	0.088	0.899*** (0.140)	-0.032 (0.077)	0.179
· 거부·회피정서	-0.136*** (0.003)	-0.038 (0.039)	0.073	0.039** (0.012)	-0.085 (0.048)	0.095	-0.342*** (0.087)	-0.065 (0.094)	0.186
· 상호교류행동의지	0.009* (0.004)	0.005 (0.056)	0.087	-0.156*** (0.008)	0.029 (0.067)	0.077	0.933*** (0.116)	0.181* (0.082)	0.171
- 보편성	-0.025*** (0.007)	-0.065 (0.080)	0.080	-0.058*** (0.005)	-0.045 (0.028)	0.060	1.697*** (0.141)	-0.023 (0.076)	0.176
· 이종적 평가	0.008 (0.007)	-0.218* (0.102)	0.099	0.025** (0.011)	-0.074** (0.023)	0.051	0.736*** (0.164)	-0.061 (0.055)	0.150
· 세계시민행동의지	-0.041*** (0.005)	0.115** (0.043)	0.102	-0.087*** (0.006)	0.008 (0.023)	0.100	1.229*** (0.113)	0.032 (0.083)	0.198
- 다문화지향성	0.137*** (0.003)	0.024 (0.078)	0.096	-0.094*** (0.007)	0.041 (0.025)	0.064	0.489*** (0.093)	-0.001 (0.033)	0.125
- 단일민족지향성	0.049*** (0.005)	-0.138 (0.111)	0.091	0.067*** (0.010)	-0.027 (0.036)	0.064	0.318 (0.171)	-0.116* (0.050)	0.090
- 위협 인식	0.004 (0.003)	-0.106*** (0.025)	0.087	0.034** (0.012)	-0.022 (0.053)	0.086	0.521*** (0.131)	-0.219** (0.067)	0.180
표본 수	4,701			4,465			1,812		

주: 계수값은 <식 1>에서 추가 통제된 변수인 log(지역 내 외국인 수)과 주변에 외국인 거주 여부에 대한 추정치인  $\rho_1$ ,  $\rho_2$ 에 대한 추정치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시도별 군집강건표준오차임. 그 외 통제변인으로 연령계층, 소득수준, 직업군, 시도, 조사연도 고정효과 및 시도별 선형 추세 등을 포함.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2012~2021)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법무부(2012~2021)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 말 기준).

다양성 차원에서의 문화개방성, 관계성 차원에서 일방적 동화기대, 보편성 차원에서의 세계시민행동의지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와 달리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 내 외국인 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추정치의 크기를 비교하면 지역 내 외국인 수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읍·면 지역의 다문화수용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 내 외국인 거주 여부 경우 중소도시의 다문화수용성과 전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읍·면 지역의 경우, 주변에 외국인이 거주하면 다양성 차원에서의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지지만 상호교류행동의지는 높아지고 단일민족지향성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직·간접적 접촉 수준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다문화수용성 형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와 같이 추정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역 규모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3. 지역 규모별 다문화정책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지역 내 외국인 수와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 변수를 활용하여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직·간접적 접촉이 지역 규모별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하위 범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와 달리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 내 외국인 수와 다문화수용성

표준점수 및 하위 범주 항목의 상관관계가 대체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는 점이다.

본 분석에서는 지역 내 외국인 수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간접적 접촉으로 간주하였다. 현실에서는 지역 내 외국인에 대한 직·간접적 접촉과 함께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 접촉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간접적 접촉 범주를 확장하여 재분석하였다. 대중매체 속 다문화에 대한 노출을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sup>6)</sup>

대중매체 속 외국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대도시에서 문화개방성, 상호교류행동의지나 세계시민행동의지 및 다문화지향성을 높이고 고정관념 및 차별이나 거부·회피정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은 낮추는 반면에 부정적인 이미지는 거부·회피정서를 높이고 세계시민행동의지는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대도시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보다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효과가 크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대중매체 속 다문화 접촉 효과는 중소도시에서 더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중소도시의 경우, 긍정적 이미지는 문화개방성, 상호교류행동의지나 세계시민행동의지 및 다문화지향성을 높이고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은 낮추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이미지는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을 높이고 문화개방성, 상호교류행동의지, 세계시민행동의지는 낮추었다.

6) 긍정적 이미지는 봉사활동을 하는 외국이주민, 한국인과 서로 화합하여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한국인에게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는 외국이주민,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다문화 이해 공익광고 및 홍보영상, 연예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한 외국인, 한국으로 귀화한 국가대표 운동선수 등을, 부정적 이미지는 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 강제 추방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범죄자 등을 포함함.

표 7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접촉 경험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rho_1$ (1)	$\rho_2$ (2)	$\theta_1$ (3)	$\theta_2$ (4)	$R^2$ (5)	$\rho_1$ (6)	$\rho_2$ (7)	$\theta_1$ (8)	$\theta_2$ (9)	$R^2$ (10)	$\rho_1$ (11)	$\rho_2$ (12)	$\theta_1$ (13)	$\theta_2$ (14)	$R^2$ (15)
다문화수용성	0.036*** (0.009)	-0.152*** (0.039)	0.103*** (0.029)	0.013 (0.044)	0.105	-0.305*** (0.011)	-0.017 (0.058)	0.010 (0.014)	0.076** (0.026)	0.118	0.110 (0.102)	-0.163* (0.082)	-0.021 (0.090)	0.184 (0.101)	0.182
- 다양성	-0.042*** (0.010)	-0.077 (0.055)	-0.058 (0.044)	0.040 (0.043)	0.067	0.028** (0.011)	-0.093 (0.053)	-0.116*** (0.022)	0.117*** (0.015)	0.109	-0.521*** (0.109)	-0.051 (0.123)	-0.079 (0.067)	0.180* (0.078)	0.240
· 문화개방성	-0.005 (0.008)	-0.054 (0.035)	0.171*** (0.026)	-0.011 (0.035)	0.084	0.097*** (0.017)	-0.010 (0.030)	0.139*** (0.032)	-0.058** (0.024)	0.071	-0.869*** (0.063)	-0.046 (0.102)	0.275*** (0.076)	0.029 (0.050)	0.195
· 국민정체성	0.012 (0.011)	-0.008 (0.062)	0.013 (0.039)	-0.015 (0.045)	0.107	-0.171*** (0.009)	-0.011 (0.023)	-0.092*** (0.019)	0.084*** (0.013)	0.101	0.596*** (0.082)	-0.055 (0.070)	-0.167 (0.106)	0.093 (0.086)	0.193
· 고정관념 및 차별	-0.077*** (0.009)	-0.059 (0.054)	-0.146*** (0.041)	0.056 (0.034)	0.092	0.004 (0.019)	-0.049 (0.073)	-0.167*** (0.029)	0.136*** (0.019)	0.110	-0.484*** (0.093)	-0.015 (0.092)	-0.163*** (0.034)	0.190** (0.062)	0.248
- 관계성	-0.115*** (0.005)	-0.047 (0.042)	0.069* (0.033)	0.043** (0.016)	0.068	-0.267*** (0.009)	-0.023 (0.034)	0.000 (0.026)	0.074* (0.036)	0.079	-1.062*** (0.103)	0.173* (0.076)	0.003 (0.041)	0.131* (0.059)	0.214
· 일방적 동화기대	-0.086*** (0.006)	-0.011 (0.051)	0.051 (0.063)	-0.006 (0.047)	0.107	-0.347*** (0.014)	0.004 (0.040)	-0.120*** (0.022)	0.103*** (0.024)	0.097	-0.098 (0.101)	0.015 (0.078)	0.023 (0.035)	0.010 (0.044)	0.187
· 거부·회피정서	-0.145*** (0.008)	-0.033 (0.048)	-0.112*** (0.023)	0.085* (0.045)	0.055	-0.015 (0.020)	-0.059 (0.048)	-0.165*** (0.021)	0.149*** (0.018)	0.107	-0.577*** (0.054)	0.011 (0.098)	-0.243*** (0.066)	0.223** (0.071)	0.243
· 상호교류행동의지	0.034*** (0.007)	-0.043 (0.057)	0.141*** (0.022)	0.001 (0.036)	0.102	-0.073*** (0.014)	0.004 (0.063)	0.227*** (0.043)	-0.096** (0.034)	0.114	-1.012*** (0.061)	0.222** (0.079)	0.171** (0.062)	0.007 (0.049)	0.205
- 보편성	-0.009 (0.006)	-0.111 (0.078)	0.178*** (0.016)	-0.047*** (0.010)	0.094	-0.249*** (0.011)	-0.092*** (0.023)	0.218*** (0.032)	-0.050 (0.042)	0.098	-0.125 (0.071)	-0.025 (0.059)	0.182** (0.056)	0.020 (0.050)	0.183
· 이중적 평가	0.009 (0.012)	-0.281** (0.096)	0.005 (0.035)	-0.026 (0.022)	0.090	-0.073** (0.022)	-0.088** (0.026)	-0.038 (0.033)	0.024 (0.044)	0.054	0.176** (0.068)	-0.087** (0.028)	0.010 (0.046)	0.044 (0.040)	0.161
· 세계시민행동의지	-0.019** (0.007)	0.109** (0.037)	0.233*** (0.036)	-0.039* (0.020)	0.140	-0.269*** (0.017)	-0.039* (0.019)	0.328*** (0.057)	-0.094*** (0.022)	0.168	-0.323*** (0.057)	0.044 (0.086)	0.235*** (0.059)	-0.012 (0.047)	0.234
- 다문화지향성	0.169*** (0.007)	-0.023 (0.071)	0.178*** (0.036)	0.048 (0.027)	0.111	0.261*** (0.010)	0.020 (0.029)	0.172*** (0.026)	-0.022 (0.018)	0.095	-0.649*** (0.048)	-0.014 (0.059)	0.145** (0.046)	0.074 (0.061)	0.172
- 단일민족지향성	0.052*** (0.007)	-0.179* (0.094)	0.065 (0.043)	-0.058 (0.045)	0.085	-0.227*** (0.009)	-0.040 (0.039)	0.013 (0.010)	0.022 (0.017)	0.063	0.490*** (0.057)	-0.164*** (0.044)	0.023 (0.077)	0.011 (0.081)	0.099
- 위협 인식	-0.000 (0.006)	-0.153*** (0.031)	-0.071*** (0.020)	0.055 (0.030)	0.080	-0.321*** (0.015)	-0.035 (0.072)	-0.122*** (0.014)	0.080** (0.028)	0.096	0.410*** (0.108)	-0.284*** (0.075)	-0.088 (0.047)	0.165** (0.064)	0.203
표본 수	4,040					3,727					1,360				

주: 계수값은 <식 1>에서 추가 통제된 변수인 log(지역 내 외국인 수)과 주변에 외국인 거주 여부에 대한 추정치인  $\rho_1$ ,  $\rho_2$ 와 대중매체 속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 노출에 대한 추정치인  $\theta_1$ 와  $\theta_2$ 를 의미하며 괄호 안의 숫자는 시도별 군집강건표준오차임. 그 외 통제변인으로 소득수준, 직업군, 시도, 조사연도 고정효과 및 시도별 선형 추세 등을 포함.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2012~2021)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법무부(2012~2021)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12월 말 기준).

읍·면 지역에서의 긍정적 이미지는 대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개방성, 세계시민행동의지 및 다문화지향성을 높이고 고정관념 및 차별이나 거부·회피정서는 낮추는 한편, 부정적 이미지는 고정관념 및 차별, 거부·회피정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대체로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대중매체 속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보다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게 크게 추정되었다.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에서의 고정관념 및 차별, 거부·회피정서에 있어서는 긍·부정적 이미지 효과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 속 다문화 노출이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지역 내 외국인 수나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예컨대, 지역 내 외국인 수 증가에 따른 읍·면 지역에서의 상호교류행동의지 저하는 대중매체 속 긍정적인 외국인 이미지 노출 빈도 증가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별 체류 거주·근로 허용 할당제 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제 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도시와 비교하여 중소도시, 읍·면 지역은 다양성과 보편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낮은 관계성과 높은 단일민족지향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도 함께 추정되었다.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차이가 직·간접적 외국인 접촉 수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고자 지역 내 외국인 수와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 및 이들 변수와 지역 규모 더미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통

제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음의 값으로 전환되어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오차항에 포함되는 관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서의 지역 내 외국인 수와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가 다문화수용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지역 규모별로 표본을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다문화수용성과 지역 내 외국인 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추정치의 크기는 읍·면 지역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는 읍·면 지역에서만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범주에 대한 효과는 요인별로 다르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지역 내 외국인 수나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의 다문화수용성 하위 범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대중매체 속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 노출 빈도수 조정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속 외국인 이주민의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노출 빈도가 부정적 이미지보다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 편차도 확인되었는데 특히 대도시나 읍·면 지역에 비하여 중소도시에서 대중매체 속 다문화 접촉 빈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게 크게 추정되었다. 읍·면 지역의 경우 대중매체 속 다문화 접촉 수준은 다문화수용성 관련 부정적인 하위 범주인 고정관념 및 차별, 거부·회피정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요약하자면 이러한 대중매체 속 다문화 접촉 빈도에 대한 규제나 기준을 정책적으로 마련한다면 지역 내 외국인 수나 주변 외국인 거주 여부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 속 특정 인종, 민족,

국적의 외국인을 과도하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공영 혹은 개인 방송에 대한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한다면 다문화수용성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 내 매체를 활용하여 대도시에서는 대중매체 속 긍정적 이미지 노출을,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서는 긍정적 이미지 노출과 함께 부정적 이미지 역제를 제안하는 바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외국인 접촉(김정숙 2023; 두예슬, 김경근 2022; 이운영 2023)이나 대중매체 노출(김세령 2023; 김재인, 문국경, 정건 2024; 이미경, 강영숙, 임유석 2024)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국내 여러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 및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와 차이점은 외국인 간접적 접촉에서 주관적으로 응답한 문항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행정자료를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살펴보고자 다양성, 보편성, 관계성 차원에서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지향성, 단일민족지향성,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 등을 합산·표준화 및 개별적으로 분석한 점에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는 다문화수용성을 하위 범주별로 다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이나 지역 특성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인하여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하여 현재 정부는 다문화가족센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행 정책의 효율성 평가를 통한 지역 기반의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고자 향후 연구에서는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의 청소년 자료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를 활용하여 학교 및 지역 특성별 다문화수용성을 확인하고 학교급과 지역에 특화된 보다 세분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References

1. 김세령. 2023. 드라마에 재현된 다문화 수용성과 상호문화 소통 양상 연구 - 「쌈니다 천리마마트」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22권, 2호: 193-223.  
Se Ryoung Kim/ 2023. The Study on Aspec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produced in Drama - Focusing on "the Pegasus Mart". *The Journal of Literary Creative Writing* 22, no.2: 193-223.
2. 김재인, 문국경, 정건. 2024. 국민정체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다문화 대중매체 접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부행정* 20권, 2호: 173-208.  
Jaein Kim, Kukkyoung Moon. 2024. Exploring the Effect of National Identit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Moderating Role of Positive Multicultural Media Exposure. *Journa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20, no.2: 173-208.
3. 김정숙. 2023. 고등학생의 다문화 접촉 경험, 활동 경험과 난민 수용성 관계에서 사회적 거리감의 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권, 4호: 185-213.  
Joung-Suk Kim. 2023.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Dis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Activity Experience, and Refugee Acceptance.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12, no.4: 185-213.
4. 두예슬, 김경근. 2022. 한국 청소년의 이주민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간 관계. *교육문화연구* 28권, 5호: 529-550.  
Yeseul Doo and Kim Kyung-keun.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nt Contac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8, no.5: 529-550.
5. 민지선, 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권, 4호: 71-94.  
Jisun Min, Doo Sub Kim. 2013. Effects of the

- Residential Ethnic Composition on the Social Distance toward Foreigner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 no.4: 71-94.
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999, 2007-2024.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Ministry of Justice. 1991, 2007-2024. Statistics on International Arrivals and Immigrants.
  7.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12, 2015, 2018, 2021.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ulticultural Family Division. 2012, 2015, 2018, 2021.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8. 여성가족부. 2012.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Report on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9. 오영삼, 남성희, 윤수경. 2014. 내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통합적 갈등이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권, 2호: 424-452. Young Sam Oh, Sung Hee Nam, Suyoung Yoon. 2016. The Influence of Feature of Intergroup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Seoul Citizen: Focusing on the Integrated Threat Theor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 no.2: 424-452.
  10. 이다은, 이윤아, 고혜빈. 2016.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88-604. Daeun Lee, Youna Lee, Hyebin Ko. 2016.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in the residential area and the perception of immigra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588-604.
  11. 이미경, 강영숙, 임유석. 2024.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 접촉이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 회보* 17권, 1호: 101-121. Miyoung Lee, Young Sook Kang, You Seok, Lim. 2024. A Study on the Effect of Contact with Foreigners through Mass Media on Multicultural Awareness. *Korean terrorism studies Review* 17, no.1: 101-121.
  12. 이소현. 2023.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세종: 국토연구원. So-hyun Lee. 2023. A Comparison of Urban and Rural Residents'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3. 이윤영. 2023.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6권, 3호: 139-180. Younyoung Lee. 202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ceived Risk to Migrant Worker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16, no.3: 139-180.
  14. 최영미, 이나련. 2016.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0권, 3호: 149-166. Youngmi Choi and NaYeon Lee. 2016. A Study on Perception towards Foreigners and Immigrants. *Multiculture & Peace* 10, no.3: 149-166.
  15. 최홍엽. 2008.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노동법연구* 25호: 185-211. Hong-Yop Choi. 2008. The present situation and issues in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Labor Law Review* 25: 185-211.
  16. 통계청 1994, 1995. 인구동향조사. Statistics Korea. 1994, 1995. Internal Migration Statistics.
  17. Ager, A. and Strang, A. 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 Refugee Stud.* 21, no.2: 166-191.
  18. Blumer, H. 1958. Race prejudice as a sense of group position.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 no.1: 3-7.
  19. Fennelly, K. and Federico, C. 2008. Rural residence as a determinant of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46, no.1: 151-190.
  20. Frasure-Yokley, L. and Wilcox-Archuleta, B. 2019. Geographic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undocumented immigrant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2, no.4: 944-959.
  21. Huijsmans, T., Harteveld, E., van der Brug, W. and Lancee, B. 2021. Are cities ever more cosmopolitan? Studying trends in urban-rural divergence of cultural attitudes. *Political Geography* 86: 102353.
  22. Kymlicka, W. 2018. Liberal multiculturalism as a political theory of state-minority relations. *Political Theory* 46, no.1: 81-91.
  23. Luca, D., Terrero-Davila, J., Stein, J. and Lee, N. 2023. Progressive cities: Urban-rural polarisation of social values and economic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Urban Studies* 60, no.12: 2329-2350.
  24. Pauker, K., Carpinella, C., Meyers, C., Young, D. M. and Sanchez, D. T. 2018. The role of diversity

- exposure in Whites' reduction in race essentialism over tim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9, no.8: 944-952.
25. Pettigrew, T. F. and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no.5: 751.
26. Pettigrew, T. F. and Meertens, R. W. 1995. Subtle and blatant prejudice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no.1: 57-75.
27. Portes, A. and Rumbaut, R. G. 2024.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Univ of California Press.
28. Schmid, K., Wölfer, R., Swart, H., Christ, O., Al Ramiah, A., Vertovec, S. and Hewstone, M. 2017. The "wallpaper effect" revisited: Divergent findings on the effects of intergroup contact on attitudes in diverse versus nondiverse contex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3, no.9: 1268-1283.
29. Schwartz, S. 2013. Value priorities and behavior: Applying a theory of integrated value systems. In *The Psychology of Values*, 1-24. Psychology Press.
30. Semyonov, M. and Gorodzeisky, A. 2005. Labor migration, remittances and household income: A comparison between Filipino and Filipina overseas workers 1.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9, no.1, 45-68
31. Verkuyten, M. 2018. *The Social Psychology of Ethnic Identity*. Routledge.
32. Zhou, M. 2009. *Contemporary Chinese America: Immigration, Ethnicity, and Community Transformation*. Temple University Press.

- 
- 논문 접수일: 2025. 1. 20.
  - 심사 시작일: 2025. 2. 4.
  - 심사 완료일: 2025. 3. 7.

## 요약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내국인의 국민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학문 및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추정하고 차이에 대한 기제로 지역 내 외국인 수와 주변에 외국인 이주민 거주 여부가 다문화수용성 하위 범주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다문화지향성, 단일민족지향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협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의 다문화수용성이 대도시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추정되었으나 지역 규모 더미와 지역 내 외국인 수, 주변에 외국인 이주민 거주 여부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추정치의 부호가 반대로 전환되어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지역 규모별로 구분하여 지역 내 외국인 수와 주변에 외국인 이주민 거주 여부에 대한 상관관계를 추정하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와 달리 읍·면 지역에서 지역 내 외국인 수가 많아질수록 외국인 이주민이 이웃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역 규모별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해서 지역 매체 속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노출 수준 조정이 제안되는 바이다.

- **주제어:** 다문화수용성, 지역 규모별 차이, 다문화 접촉 빈도, 외국인 수, 이주민 이웃